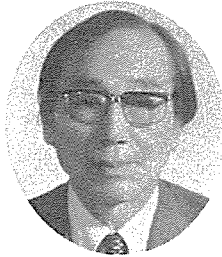


舉國的聲援속 起工式 올려

— 科學技術會館建立 前後〈上〉 —



金 東 一

〈理博·本會常任顧問〉

◇本稿는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중심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科技總의 韓國科學技術會館 건립에 얽힌 뒷얘기를 자료 위주로 후일의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집필한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지난호에 이은 「科總創立15주년 特輯」의 하나로서 기획된 것이다. 〈편집자註〉

1. 緒 言

우리 科學技術界가 會館을 가져야 하겠다는것은 8·15해방 직후부터의 宿願이었다. 6·25事變 以前에도 當時 유일한 종합적 과학기술 진흥단체였던 朝鮮工業技術聯盟의 간부들이 그때 서울시 建設局長이었던 閔浚植씨의 협조를 얻어 노량진 소재 敵産인 日本 竹中工務店 社屋 (現 大韓教科書株式會社)을 接수하려고 현장시찰을 한 일이 있었다. 또 中區 갈월동 소재 敵産 2층건물을 接수하여 직원을 常任시킨 일이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해 모두 水泡로 돌아갔다.

환도이후에는 大韓技術總協會 姜琬武會長 일행이 당시의 金顯哲 國무총리와 元容奭 經濟企劃院장관을 歷訪하여 회관의 주선을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66年 4月 개최된 제 1 회 全國科學技術大會에서 채택된 尙政府 建議案중에서 韓國科學技術會館의 建립이 兪意된후 12月 2日 科總會長團 (명예회장 포함)일동이 朴正熙대통령을 예방하였는데 이때 大統領으로부터 「會館의 垆地가 마련되는 대로 우선 3千萬원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會館建립활동이 활기를 띠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垆地의 求得이 의외로

간관에 부닥쳐 약 5 년이란 긴 세월이 소비되었고 건축공사도 政府보조금 交付의 지연과 會館 건립基成會募金の 지연등으로 인하여 또다시 5 F이란 세월을 거쳐 도합 10年후에야 本會館의 竣工을 보게 되었다.

이 글은 그간의 會館건립을 위한 국내 과학기술계의 끈질긴 活動의 經緯를 後日을 위해 記述한 것인데 讀者諸位의 협조를 얻어 그 充實을 기하고저 하는 바이다.

2. 垆地 物色

前述한바 科總會長團의 朴대통령 面接 당시 秘書室의 指示로 당시 陸軍조달감실 서울分室 所管이었던 2층건물(第一銀行本店 西南쪽 소재)을 答사한바 그 건물을 占상인들이 점거하고 있어 明渡가 곤란할뿐 아니라 대지가 협소하여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제 2 차로 科總 명예회장의 한분인 尹日善 박사를 앞세우고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尹致燮박사를 방문, 요청한 결과 槓忠壇공원 南側 越便 世界反共聯盟 소재의 대지가 넓으니 그 一角을 교섭하여 보라는 指示가 있어 노력하여 보았으나 성과가 없었다.

要路에의 交섭 계속 실패

제 3 차로는 光化門通 旧 京畿道庁 뒷쪽에 있던 市警 騎馬隊소재 대지 약 6백평을 서울特別市長에게 交섭하였으며 제 4 차로는 政府綜合庁 舍 西側空地를 總務處長官에게 요청하였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 5 차로는 瑞麟洞 金晟鎭外科病院대지에 同병원측과 공동으로 건축하자는 제의나 있었으나 實現되지 못하였다.

제 6 차로 당시 水資源開發公社가 제 1 한강교 東側 漢江北側 강변 일대에 광대한 垆地를 구축하고 있을때 安京模社長이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특별할인 가격으로 대지를 불하할수 있겠다는 提示가 있었으나 당시 科總으로서는 대지를 구매할 자금이 全無한 형편이었으므로 이 제의에 응할 도리가 없었다. 현재 이 대지에는 漢江 아파트단지가 林立해 있다.

제 7 차로 南山제 2 터널 개설공사로 인하여 槓忠壇공원 서쪽에 空地가 새로 생긴 것을 科總 부회장이었던 金海淋氏가 발견하고 이를 당시의 梁鐸植 서울特別市長에게 交섭하게 되었다. 梁 시장 역시 科學技術界 출신이었던 탓도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기되어 최종적으로 朴大統領의 裁可를 얻기만하면 될 단계에까지 추진되었다.

그러나 朴大統領은 梁市長이 마련한 차트를 검토한후 『이 자리에는 南山의 景觀上 高층건물은 짓지 않는것이 좋을 것이니 汝矣島 또는 江南쪽 적당한 곳을 물색하여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역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 이 대지 일대에는 국제 테니스 경기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외에도 科學技術情報센터를 공동사용한다든가 慶福宮내에 신축한다는 등 案도 있었으나 실현성이 없었다. 이리하여 최종으로 서울시에서 마련해준 것이 현재의 科學技術會館이 건립된 江南區 馭三洞 山76-561 所在 2,500坪의 대지이다.

이 대지는 馭三公園용지의 一角이었는데 그후 國技院(태권도회관)과 國立圖書館이 추가로 건립되어 이 공원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대지물색을 위하여 실로 5 년이란 긴 세월을 소비한 것이다. 이리하여 1971年 9月24日 科總창립 6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金基衡 科技處長官, 梁鐸植 서울特別市長등 내빈과 鄭文基씨등 元老과학자 다수 臨席下에 起工式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대지물색을 통한 梁市長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功勞는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3. 會館건축 규모 및 資金調達계획

會館건축의 규모에 관하여는 대지물색 당초부터 여러가지 案이 제시되었다. 그 일례를 들면, 앞서 언급한 市警騎馬隊 소재 대지(世宗路 81번지)에 건축평수 3千坪, 地下 2층에 各히 지상15층, 17층 및 24층의 3개案을 구상 하는

응대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당시 韓國綜合技術公社의 이사장이며 科總고문이었던 朴昌源씨를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이 公社와 韓國科學技術情報 센터(KORSTIC)와 공동으로 건립하는 것이었는데 대지求得이 실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案의 자금조달방법이 주로 이 公社의 出資金과 임대보증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堅實性에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후 白紙化되었다.

1971年 9月, 대지가 현위치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규모는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다.

垡地 2,500坪

建築面積 200坪

建物 地下 1층 地上 9층

延建坪 約 2,000坪

所要資金

建物工事費 ₩246,000,000

附帶施設物 ₩35,000,000

計 ₩281,000,000(物價상승으로 인하여 3억 6천만원으로 증가됨)

會館건축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보조금과 민간찬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에 앞서 최대한의 자체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1968年 9月 科總의 定款을 개정하여 科總의 會員團體 소속의 個人:會員으로부터 特別會費를 거둘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또 1969年 6月에는 會館에 入住를 희망하는 會員團體에 대하여는 會館 준공 후 賃借料 없이 永久入住를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投資規定을 제정한후 이 규정에 의한 투자를 會員團體에게 권장하기로 하였다.

特別會費와 入住투자금은 회관 준공때까지 약 445百만원 밖에 거두지 못하였으나 특히 공사초기의 자금으로서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會員들의 참여의식 고조

政府보조금은 1967年 4月 第2回 全國科學者大會의 對政府 建議를 거쳐 매년 정부예산당국에 이를 신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74년 부터서야 金鍾泌국무총리의 적극적 配

慮에 힘입어 아래와 같이 교부되었다.

1974年度 5千万원

1975 " 5千万원

1976 " 1億원

計 2億원

이와는 별도로 會館이 준공된후 1977年度에는 市有地인 現 垡地 구입자금으로 8千万원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2千5百坪의 대지중 1,250坪을 拂下받게 되었는데, 이에는 崔圭夏국무총리의 배려가 컸었다. 그러나 나머지 1,250坪의 불하는 아직도 未決로 남아 있다.

한편 民間 찬조금을 거두기 위하여는 1972年 會館건립期成會를 官, 民, 學界를 총망라한 전국적 규모로 결성하여 활동한 결과 6년간에 걸쳐서 9千2百萬원을 힘겹게 수금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章을 바꾸어 상세하게 기록하기로 한다.

4. 會館建立期成會

前述한 바와 같이 會館단체의 特別會費 및 入住投資金の 수금에는 限度가 있고 또 정부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民間贊助의 募金이 會館건립의 成敗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浮上되었다.

이리하여 1972年 4月 第7回 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會館建立期成會의 결성이 발기되고 이해 5月 3日 전국적 규모의 期成會가 창립되어 定款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名單은 아래와 같다.

●會長 = 朱耀翰 ●副會長 = 尹日重, 趙鼎九, ●理事長 = 金東一 ●理事 = 權寧大, 金尚榮, 金立三, 金鍾大, 金海淋, 白永勳, 徐永圭, 元容雲, 李昌錫, 李致寧, 玄信圭, ●常任理事 = 康智弘, 金溥天, 金錫濬, 金善吉, 金鉉基, 朴勝輝, 薛鎮哲, 尹英九, 尹泰葉, 黃己坤, ●監事 = 金仁得, 張炳贊, 鄭在九

이 외에도 官界, 產業界 및 學界를 총망라하여 명예회장 22명, 고문 202명, 평의원 844명, 지도위원 2,991명을 합하여 총 3,284명 이라는 舉國的인 조직망이 구성되었다. <계속>